

63호**“단 한명의 구조조정도 용납할 수 없다!!”****■ 구조조정 분쇄**

쟁대위 속보

■ 조합원 징계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2009.12.03(목)**

|| 발행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발행인 박노균 || 전화 02-3456-8157 || FAX 02-3456-8159 || E-mail baljeon@baljeon.nodong.net ||

권역별 파업을 교두보로 2차 전면파업을 힘차게 조직하자!!

중앙쟁대위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그 동안의 투쟁을 평가하고 12월 투쟁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사측에 대해 다시금 교섭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실질적인 교섭 재개와 사측의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확정된 계획에 따라 현장동력을 모아내고 12월 16일 제2차 필수유지업무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2~4개 지부 묶어 권역별 파업 진행

12월 3일(목) 13시부터 18시까지 인천화력지부, 서인천·신인천북합화력지부가 파업을 실시한다. 12월 7일(월)부터 15일(화)까지 중앙쟁대위가 2개조로 편성되어 전국을 순회하면서 2~4개 지부별 조합원과 함께 파업을 진행한다. 지부별 하루 또는 부분파업을 원칙으로 하되, 영흥화력처럼 사측이 조합원을 협박·회유하거나 출장·교육등으로 파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대해서는 일정을 연장하여 진행할 것이다.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

이번 권역별 파업에는 필수유지업무 제외 조합원 전원이 나서지는 않는다. 지난 11월 6일 전면파업 참가 대상 조합원중 이런 저런 이유로 참가하지 못했던 조합원들이 파업대오를 형성한다. 11월 6일 전면파업은 발전노조가 처음 시도 해보는 파업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측의 여러 가지 회유

와 협박에 많은 조합원들이 주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1차 전면파업을 통해 사측의 징계협박이 사기극이었음을 확인했고, 영흥화력지부 파업을 통해서도 사측간부들의 회유가 거짓과 위선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조합원간, 지부간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노동자가 하나임을 확인할 것이다.



서로 격려하고 확인하며 하나가 된다

지난주 영흥화력지부 파업에서 나타난 파업 현장과 비파업 현장의 온도차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권역별 파업 기간 동안 파업 미시행지부는 매일 중식피켓팅, 퇴근집회 및 조합원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타지부에서 진행되는 파업소식을 신속히 전파하고, 현장의 결의를 높여나갈 것이다. 또, 전조합원이 서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는 매일의 지부활동 상황을 취합하여 전체 현장에 알려낼 것이다.

임·단협 승리! 구조조정 분쇄! 인력충원 쟁취! 성과경쟁 분쇄! 전력산업 통합!

내가 굳건히 준비하고 나아가면 상대는 하루밤에 삼사(3일 전투를 그만 둘 거래)를 물러난다

어제(12월 2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5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여의도공원을 가득 메웠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7일차 파업투쟁 중이다. 철도노조 역사상 최장기 파업 기록을 세우고 있다. 11월 26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당시에는 1만4천여명이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참, 복귀했던 조합원들이 속속 투쟁에 합류, 대오는 오히려 늘었다. 지역, 권역별로 파업승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부별로 조를 짜서 등반을 하기도 하고, 낚시를 하는 분임조도 있다. 장례식장에 조합원들이 모여서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자 결의하고 지부대항 족구 등 체육대회를 하는 지역본부도 있다. 1박2일 수련회를 통해 결의를 다지는 지부들도 있다. 물론 권역, 지부별로 모여서 교육과 조합원 토론을 통해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유하고 투쟁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단협 해지를 통보 받아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법질차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했다. 그리고 전면파업 첫날은 언론을 통해 파업 불참과 현장복귀자가 절반가량 된다고 뺑도 쳐봤다. 그러나 파업대오는 흔들리지 않고 더 강고해졌다. 심지어 지부장이 현장복귀를 명했으나 오히려 조합원들이 그 지부장을 물리치고 새롭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지도부를 꾸려서 다시 파업대오에 합류한 곳들도 있다. 예전엔 항상 먼저 현장에 복귀한 지부도 이번에는 파업에 대부분이 참여해서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투쟁에 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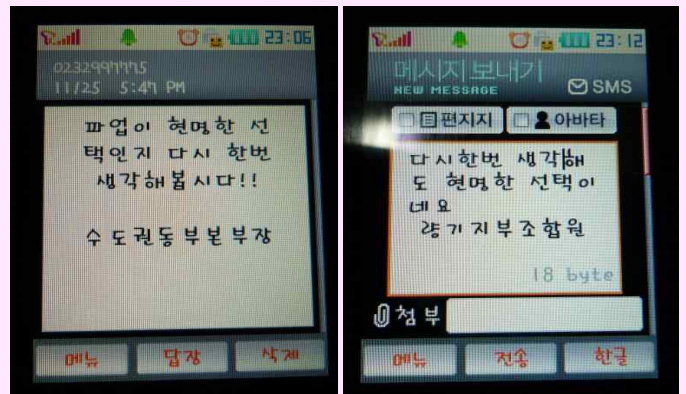
이에 놀란 철도공사와 정부는 800여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180여명을 고소고발 했다. 기재부 장관은 공기업 선진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불법파업이라는 담화문을 서둘러 발표했다. 곧이어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도부에 수배령을 내렸다.

법을 다 지키면서 파업을 해도 결과는 어차피 불법이다.

공사의 '선복귀 후협상' 방침과 선진화 워크샵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이명박대통령의 발언, 일단 '불법'으로 몰

아부치자는 정부의 발상, 대체인력투입과 대대적 고소고발, 징계 남발, 그리고 계속해서 문자메세지로 현장복귀 안하면 중징계한다는 협박 남발은 결국 철도공사와 정부도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체의 핵심으로 본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지만 탄압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 부도덕하고 야비한 방법으로는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끝내 승리할 수 없다. 그것이 법과 원칙이라고 철도 조합원들은 확신하고 있다. 다음아고라 등의 여론에서도 철도투쟁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철도 동지들이 온갖 회유와 협박을 뚫고 투쟁에 대한 사회적인 확신을 갖고 투쟁을 당당히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불법투쟁을 바로 정부가 만들어 주고 있다.



탄압과 구조조정 공격 상황은 우리 발전도 다르지 않다. 우리 발전 조합원 동지들도 사측의 압박에 대한 부담감과 투쟁의 필요성 사이에서 많이 갈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공기업 선진화가 사회적 실업 문제를 노동조합 파괴와 무력화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정책과 공기업 경영, 구조조정의 원인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당당히 투쟁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공사의 철도노조 탄압, 많은 공공기관 노조들에 대한 단협 해지와 노동탄압의 의도가 이렇게 분명해졌다.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

5개 발전회사 1,570명 강제인력감축 조직개편 진행

-팀제 및 성과연봉제까지 도입 추진-

노동조합의 파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각 발전회사는 지난 3월 정원감축 이사회의 후속조치로 1,570명에 대한 강제적인 인력감축을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동서발전을 시작으로 서부, 남부, 남동발전이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고, 조만간 중부발전도 조직개편을 발표할 전망이다. 발전회사의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1,570명의 감축인원중 대부분이 간부영역에 비해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고, 하위직 인력감축을 위해 비주력업무 아웃소싱, 희망퇴직시행, 부서통폐합, 과단위 폐지 및 전면 팀제 시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심지어는 BTC보직을 간부직화 하는 등 발전운전원에 대한 직접적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측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단위까지 전면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며 조합원 영역까지 성과연봉제 확대를 노리고 있고, 성과에 따라 보직과 퇴출이 자유로운 '실질적인 팀제'를 도입하여 일상적인 노동유연화, 즉 일상퇴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정권과 사측은 학자금 폐지를 비롯한 복지축소, 임금삭감과 함께 우리의 일자리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전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 밖에 없다.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파업투쟁 승리로 반드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자.

임·단협 승리! 구조조정 분쇄! 인력충원 쟁취! 성과경쟁 분쇄! 전력산업 통합!